

'보실리 6승·최원준 멀티포' KT, 6-0 승리로 두산 4연패 빠뜨려

등록 2026.05.26 21:24:21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KT 위즈 외국인 투수 케일럽 보실리. (사진=KT 제공) 2026.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KT 위즈가 외국인 투수 케일럽 보실리와 최원준의 투타 활약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완파했다.

KT는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두산과의 경기에서 6-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KT(28승 1무 19패)는 우천 취소로 경기를 치르지 않은 1위 삼성 라이온즈(28승 1무 18패)와 승차를 0.5경기로 좁혔다.

완패를 떠안은 두산(22승 1무 26패) 공동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KT 선발 마운드를 지킨 외국인 투수 케일럽 보실리의 역투가 압권이었다.

1회말 땅볼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3루수 허경민의 호수비에 힘입어 삼자범퇴로 마친 보실리는 3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이 어갔다.

4회초 김상수의 적시타와 5회초 최원준의 솔로포(시즌 2호)로 두 점의 득점 지원을 받은 보실리는 4회말 1사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으나 김민석에게 첫 안타를 내줬다.

이후 1사 1루에서 정수빈이 날린 강습 타구가 1루수 김현수의 글러브에 들어갔고, 김현수는 주자 김민석보다 먼저 1루 베이스를 밟아 이닝을 끝냈다.

KT 타선은 6회초 추가점을 뽑으면서 보철리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다.

김민혁의 안타, 샘 힐리어드의 볼넷으로 일군 무사 1, 2루에서 허경민이 2타점 2루타를 터트렸다.

이어 김상수가 중전 안타로 3루 주자 허경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KT가 5-0으로 앞섰다.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보철리는 6회말 위기를 넘기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보철리는 1사 이후 윤준호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이유찬과 박찬호를 각각 우익수 뜯공, 포수 스트라이크아웃 낚아웃으로 돌려세웠다.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보철리는 1사에서 손아섭에게 좌전 안타를 헌납했으나 다즈 카메론을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한 뒤 김민석을 좌익수 뜯공으로 잡아냈다.

5-0으로 리드한 KT는 한승혁이 8회말, 박영현이 9회말을 실점 없이 막아내며 영봉승을 수확했다.

KT 보철리는 7이닝을 3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시즌 6승(3패)째를 거두며 앤더스 톨허스트(LG 트윈스), 아담 윌러(KIA 타이거즈)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두가 됐다.

타선에서는 최원준이 4타수 2안타 2홈런(시즌 2, 3호) 2타점 1볼넷 2득점으로 공격을 지휘했고, 허경민 역시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쾌조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두산 선발 최민석은 5회까지 안타 8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해 5점을 내주며 시즌 첫 패배(4승)를 떠안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